

다문화 핵심역량 기반 독일어 문화수업의 고찰

박현선
(한국교원대학교)

Park, Hyun-Sun. (2016). Eine Überlegung über den deutschen Kulturunterricht in Bezug auf die multikulturellen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9, 73-95.*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welche Elemente für multikulturellen Unterricht besonders in Bezug auf die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fundamental und effektiv sind. Nach der Empfehl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Rates sind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eine Kombination aus Wissen, Fähigkeit und Einstellungen, die an das jeweilige Umfeld angepasst sind. Besonders benötigt werden diese Kompetenzen für die persönliche Entfaltung und Entwicklung, die soziale Eingliederung, den aktiven Bürgersinn und die Beschäftigung. Bis jetzt war es wichtig, dass welche kulturellen Inhalte die Lehrer unterrichtet haben. Aber heutzutage ist es wichtig, dass 'welche Kompetenzen' im multikulturellen Unterricht betont behandelt werden. Weil interkulturelle Schlüsselkompetenzen sich auf das Verstehen zwischen dem eigenen und fremden Kultur beziehen und dabei die Emotionseffekte der Lernenden wichtig sind. Deswegen wird 3 E-Modell von Tiedt(2010) für den multikulturellen Unterricht hier gezeigt: Esteem, Empathy und Equity auf Englisch. Und in dieser Arbeit werden die Unterrichtsmethode und -strategie im Hinblick auf die Wertschätzung und Empathie mit einigen Schlüssel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im Kulturunterricht näher untersucht.

Key Words: Kulturunterricht, Multikultureller Unterricht, Deutsch als Fremdsprache, Kompetenzen für lebenslanges Lernen

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점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화'는 최근 학문에서 매우 인기있는 키워드이다. 문화 영역은 매우 다양한 학문과 융합하여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학 교양과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화와 철학, 문화와 과학, 문화와 역사 등의 과목들이 그 예이다. 그러나 타 학문과 문화와의 융합뿐만 아니라, 문화는 그 자체 내에 복합문화적 융합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현상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자문화와 타문화 그 자체의 융합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들의 만남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화 과제, 즉 다문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 수업 중 언어를 통해 타문화에 대해 접해 보는 것과 국제 사회 대비를 목표로 타문화를 배우고 다문화능력을 길러가는 외국어 문화수업은 다소 차이가 있다. 후자의 문화교육, 특히 제 2 외국어 수업을 통한 다문화능력 중심 문화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교사 스스로가 문화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해진 학습자들의 상황이나 목적에 맞춰 학습자들의 동기를 충족시켜 줄 학습 소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문화 수업의 진행 방식을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교육과정은 21 세기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핵심역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특히 정책과제로 많이 행해졌고, 특히 2012 년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도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2015 교육과정 역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핵심역량 정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이근호 외 2013a). 이런 교육 경향에 맞춰 제 2 외국어 속 문화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교사는 외국어 문화 수업에서 어떤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고 교수해야 하는지, 문화요소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 교육의 기초를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그러한 다문화 수업에 필요한 학습 체크리스트를 독일어 수업 상황에 맞춰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Tiedt(2010)의 3E(esteeem, empathy, equity) 다문화 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3E 요소가 문화 수업을 통해 교육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 수업의 구현 방식과 수업 운영 형태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어지는 II 장에서는 핵심역량과 교사의 문화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국어 영역에서는 어떤 핵심역량이 중심이 될 수 있는지, 21 세기의 핵심역량에 맞춰, 외국어 영역의 특화된 핵심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교사들은 문화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지식 상태와 심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등 교사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점검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다문화 교육 원리에 입각하여,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면 문화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내용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다. IV 장은 독일어 문화수업에서 문화소재를 어떻게 학습자에게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역량인 다문화능력을 성공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인지를 타진하고자 한다. 이때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 교수법을 활용해서 학습자 스스로가 문화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결국 외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의 문화역량뿐만 아니라, Stewart & Bennett(1993)가 언급했듯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활동의 형태, 사회적 관계의 형태, 세상에 대한 지각 및 자아에 대한 지각의 지평을 넓혀 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기여하는 핵심역량과 학습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I. 미래 핵심역량 교육

1. 미래 핵심역량과 다문화수업 교수법의 방향

OECD 는 1997 년부터 2003 년까지 개인의 성공적 삶과 사회의 발전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하기 위해 프로젝트(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3 개 범주의 9 개 영역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에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이근호 외(2013a)는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핵심역량으로 보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등의 10 가지 항목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를 준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에는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2013년에는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이라는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를 위하여, 호주,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퀘벡 주의 자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2 가지의 공통사항을 얻어냈다: 1) 우선은 국가 공통 핵심역량의 하나로 자국어과 교육의 핵심 목표인 언어 사용 능력을 설정하고, 이 역량이 개인, 학교, 학문, 직업, 사회적 삶의 성공에 핵심 필수 역량이다. 그리고 2) 이 역량을 전체 교육과정 총론의 범 교과 학습의 첫 번째 항목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한다(참조. 이근호 2013a, 254).

이 착안으로부터 우리나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국어과’의 핵심 역량을 연구하고, 그 내용이 전반적인 교과목에 걸쳐 연계되어 각 특성에 맞춰 보장될 수 있도록, 연계적인 핵심역량 교육과정 계발 작업을 실시하였다. 예컨대, 이 연구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에서 계발 할 핵심역량은 ‘국어 사용 능력’,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기본 학습 능력’, ‘언어와 문화 정체성’, ‘공동체 시민 의식’, ‘사회적 소통과 협력 능력’의 7 가지이다. 자국어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사회,

체육, 과학 등은 해당 교육 영역의 교육 가치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제시하면서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재해석된 핵심역량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해당 영역에서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별 교과목들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여기서는 독일어 교육에 있어 다문화 수업은 어떤 핵심역량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고민을 통해 시대에 맞는 문화수업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3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7 연구보고서). 이 연구보고서에는 ‘알버타 주민들과의 대화: 감동이 있는 교육(Inspiring Education: a dialogue with albertans)’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감동이 있는 교육’이라는 정책에서 제공하는 핵심역량의 범주가 제 2 외국어로서 독일어 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핵심역량은 크게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지적 역량의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부 역량을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알버타 주 ‘감동이 있는 교육’의 핵심역량 범주와 그에 따른 세부 역량

역량범주	세부 역량
개인적 역량	자기관리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 이해, 대인관계 능력
지적 역량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상호문화교수법을 제시한 독일교수방법 연구자인 Neuner(1993)는 “문화교육에 의한 학습자의 자기이해(Selbstverständnis)에 미치는 효과는 낯선 세계에 대한 경탄과 자기 문화에 대한 평가절하, 나아가 ‘낯선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참조. Neuner, 1993:111)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수업은 학습자의 자기이해를 출발로 다문화의 이해와 공감 및 수용 기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외국어 수업의 목표는 화자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소통에 중점을 둔 외국어 교육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인 반면에, 이 관점에서의 외국어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국제문화

이해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수단까지를 포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미래 핵심역량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 역량

다문화 '이해', '공감' 그리고 '수용'의 측면에서 문화교육 핵심역량을 다시 살펴보면, 개인적 역량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기인하는 '다문화 이해 및 공감 역량'이 주목할 만하고, 사회적 역량에서는 '국제사회 문화 이해' 그리고 지적 역량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이라고 하는 각 3 가지 역량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 기존 교육은 이러한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와 교수 방법(Wie)에 주로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누가(Wer) 이 교육을 할 것인지 즉, 교사의 전문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이근호 외(2013b)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알버타 주의 연구 내용 중, 알버타 주는 학교 교사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에 역점 두고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즉, 새 교육과정은 학생중심, 역량중심,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한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등이 핵심이지만, 여타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것은 우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 교사들의 핵심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다.

이근호 외(2013b)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교사의 전문 역량에 관심을 갖고, 미래 학교에 요청하는 교사의 전문 역량으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다: 교사는 (1)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통한 심화 학습의 강화, (2)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기회의 제공, (3) 핵심역량 증진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의 다양화, (4) 단위 학교의 전문성 및 교사의 역량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참조. 평가원 보고서 2013a, 2013b). 그러나 이 보고서에 언급된 교사의 전문 역량은 교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한 것일뿐, 사실상 교사의 다문화 지도 핵심역량 상태를 점검하거나 알아보게 하는 역할로 보기에 미흡하다.

이완기, 김진석, 장은숙(2012)은 '문화기반 내용 구성에서의 교사 성찰'이라는 연구에서 Tiedt & Tiedt (2010)가 미국 교사들에게 제안한 교사를 위한 다문화 능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교사들이 스스로 갖출 다문화 기반 핵심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다. 이 점검요소가 교사 스스로 자신의 다문화 교육 능력과 다문화에 대한 인지 상태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자신의 다문화 교육 능력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Tiedt & Tiedt 가 제안한 10 가지 다문화 역량 점검 요소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정도 1'은 '매우 그렇다', '정도 2'는 '그런 편이다', '정도 3'은 '그렇지 않다'를 뜻하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 편집하여 기술함):

표 2

미국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교사용 체크리스트 예

점검요소		정도 1	정도 2	정도 3
1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모든 생활은 다른 문화들 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적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문화도 다른 것보다 더 자국적이라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2	한쪽 문화를 흡수하는 방향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쪽으로 사고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3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해 가르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두루 학생을 위한 개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			
4	교육과정 계획은 학생중심이어야 하며, 존중, 공감, 공평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교육은 학생들이 그들의 개인적 문화와 유산에 자부심을 갖도록 안내하고, 타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자국 문화를 거부할 필요가 없다.			
6	자신의 선행지식, 개인적 경험 및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채 학교에 오더라도, 현재 처한 새로운 문화권의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만 그 가치가 커진다.			
7	교사는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교사의 선입견들이 어떻게 그들의 학생에 대한 기대감,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 필요가 있다.			
8	적극적이고 다양한 배움의 전략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교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휘하지 않아야 한다.			
9	다문화교육, 글로벌 스터디, 교육과정의 세계화는 인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다.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한다.			

10	다문화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 태도 등을 다룬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행동의 변화와 공감의 계발은 시간이 걸린다. 평가는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해 유연해야 한다.			
----	--	--	--	--

물론 이 점검요소는 외국어 수업의 다문화와 같이 특정 교과수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사 인식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면에서 다양한 점검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즉, 자신의 것과 낯선 것 사이의 문화 우월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성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의 상태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학습자 개개인의 내적인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대의적 질문들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한국의 외국어 수업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Weber(1970)가 수업은 어떤 대상에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인식, 경험, 행위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했듯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참조. 박현선 2014). 이를 위해 Tiedt & Tiedt 가 제안한 점검 요소 이외에도, Fantini(1997)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교사에게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 질문은 외국어 문화수업이나 역동적 교실 상황에서의 문화적 내용을 포함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 학생의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 목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이해를 함양하고 있는가?
-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 학습자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가?
- 야기되는 문화 간 갈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가?
- 문화 간 범주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을 탐구하는가?

이와 같이 미래 학교는 다문화 속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 내용이 강화되기 때문에 교사의 지식 활동 보다도, 오히려 교사의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부각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 전달의 기술 측면 이외에도, 실제 수업을 하는 사람의 다문화 핵심 역량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다문화 교육 원리와 교실에서의 문화 범주

교사가 문화적 경험을 구조화하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습자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문화 교육에서는 단순히 문화를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수업형태를 벗어나, 배려와 이해라는 감정 기반 수업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진석(2015)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기반 다문화 교육의 실라버스 및 평가’에서 다문화 교육의 내용체계를 연구하고, Tiedt(2010)의 다문화 교육 원리를 소개하였다. 이 다문화 교육 원리는 3E(Esteem, Empathy, Equity)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이 원리는 다른 다문화 교육 원칙들과는 달리, 해당 요소 모두가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으로 구성된 3E 다문화 교육 원리(참조. 김진석 2015, 177-198)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 다문화 교육을 위한 3 가지 교육 원리

학습자들이 다문화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의식주 문화를 알아야 할까? 상대 국가의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할까?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유사한지, 문화 내용 그 자체의 지식 이외에도, 문화를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Neuner(1993)가 상호문화 관점에 대한 설명 중 독일어 수업에서 의미 있는 주제는 “학생의 인생 경험을 넓히는데 기여하며, 자기의 인생경험과 접목할 가능성을 주고 낯선 세계와 자기 세계에 관해 계속 의문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낯선 세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비교·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의 모든 상황이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다문화 기반 수업에서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정서 요소로는 ‘존중’, ‘공감’ 그리고 ‘공평’의 3 요소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존중’은 ‘공감’으로 가기 전에 체득되어야 하는 요소이며, ‘공감’이 계발되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공평의식’은 자리잡게 된다. 이 3 가지 요소가 서로 순환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김진석(2015)은 ‘존중’, ‘공감’, ‘공평’ 각 요소가 어떤 상황에서

정서 기반 다문화 교육 원리로 작용하는지 각 개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참조. 김진석 2015, 184-188). 이 설명은 제 2 외국어 수업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 학생이 한 교실에서 겪는 다문화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다문화 수업에서 3E 요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 다문화 교육의 현장에서의 3E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다.

(1) 존중(Esteem)은 다른 문화권에서의 성장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만났다면, 학교에서의 많은 경험은 그들이 익숙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개별 환경이나 자아 존중감이 점진적으로 상실되기도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문제점을 상쇄시키고,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다. 이런 부분은 지식이나 수업 내용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정서적인 요인, ‘존중’ 감정의 형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Tiedt(2010)는 다문화 교육 모형의 첫번째 요소로 ‘존중’을 꼽았다. 이 존중 의식은 자아 존중감의 증진을 의미한다. 자아 존중감은 다양성의 존중감으로 연결된다. 학생의 개인적 단계에까지 심층적으로 연결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바로 이 관점은 Neuner(1993)가 상호 문화 관점에서 강조한, 학습자의 자기이해(Selbstverständnis)에 미치는 효과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문화수업의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에 학습자들은 흥미를 갖고 있는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요소를 중심으로 수업 소재를 선택하곤 하였으나, 이 기준만으로 수업 소재를 선택하기에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효과를 증진시키는데는 부족하다. 이때 추가되어야 할 첫번째 기준은 바로 ‘존중’이라는 기준에서 해당 요소를 다시 재점검하여 수업소재를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요소를 독일어 수업에 접목시켜 볼 수 있다.

독일의 휴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소재는 학습자의 흥미도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수업주제이기 때문에 문화 수업의 단골 소재이다. 흔히 우리는 독일의 휴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곤 한다. 그러나 ‘존중’ 요소가 포함된 다문화 교육 원리는 이러한 설명형 수업 방식 자체를 바꿔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 운영 방식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문화권 내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른 방식의 타 문화권 ‘명절 보내기’ 체험을 통해 자국의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휴일이나 명절 문화는 다양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다양함에 대해 존중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존중은 사회적 핵심역량 중 국제사회 문화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 공감(Empathy)은 유대감이다. 이 유대감은 나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 공감을 통해 그들의 신념, 가치, 규범 및 관습 등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교라는 제도는 청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유대감 형성 기관의 좋은 틀이다. 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유대감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화수업은 같은 교실에서 다양함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그들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공감’은 같은 교실에서 타인의 행동이 곧바로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특히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하다. 인본주의 심리 중 인지 관점을 강조했던 Combs는 개인의 모든 행동은 그가 행동하는 순간에 그가 지각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학습자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각했다는 것은 이미 학습이 일어난 것이며, 그것들은 학습자의 행동으로 반영된다(참조. 윤운성 1995).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타 문화에 대해서 지각을 했다는 것은 바로 순간 그에 대한 사색이 일어난 것이며, 그 사색을 통해 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이 계발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수업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개인적 핵심 역량으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능력을 기르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평(Equity)은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교육은 누구나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요구에 맞는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강점을 살리고 배움의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회가 특정 그룹에만 제공되거나 또는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일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신분과 문화 및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여성이거나 또는 언어 소통에 결핍이 있거나 또는 낮은 사회 계급의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수행할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수업에서도 학습 내용을 수행하거나 평가를 받을 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다는 기준이 우월한 가치 척도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 학교 사회 내에서 자신과 타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친구가 차별을 받거나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진 것을 본 학습자는 자신이 사회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교실에서 지각된 불평등 감정을 해소하기 어렵다. 차별을 했던 교실이 바로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수업에서는 존중과 공감의 감정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이 매사 공평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체득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문화 교육 모형의 3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문화 수업 핵심역량과 그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표 3

3E 다문화교육 원리와 학습자 핵심역량의 연계성

3E 다문화 원리	다문화 수업과 학습자 핵심 역량	
존중(Esteem)	사회역량	국제사회문화 이해, 대인관계 능력
공감(Empathy)	개인역량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공평(Equity)	지적역량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

II.1.장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역량의 연구로 알버타 주의 ‘감동이 있는 교육’을 살펴 보았는데, 이 교육목표는 우리 교육에 진정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학교 교육’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의 학교 교실에서는 다문화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수업 중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적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교실 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외국어수업과 같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과목들은 그 수업의 구성에 있어서 지적·개인적·사회적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춰 미래사회를 운용할 수 있는 다문화 핵심역량을 길러 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2. 교실 수업에서의 문화 학습 소재 - 독일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독일어 수업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독일어 문화 학습 내용 체계와 수업의 성취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9 교육과정부터는 외국어 영역에서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되었으며, 2015 교육과정에서도 문화는 중요한 언어 요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 2015 교육과정에서 생활독일어 및 독일어 1 의 경우를 보면, 교육 목표 아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는 5 번째 항목으로 ‘문화’ 영역이 존재한다. 문화는 내용에 있어서 4 가지, 즉 ‘언어문화’, ‘생활문화’, ‘지역사정’, ‘사회문화’로 세분되며, 각 영역은 수업 및 교과서에서 학생 활동 위주로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선 2015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독일어 1 의 문화 교육 내용 영역은 다음과 같다(참고. 제 2 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2015-74 호 별책 16 호):

- 언어문화 (관용적 표현, 속담과 격언 등)

- 생활문화 (의·식·주, 여가·취미, 기념·축제일 등)
- 지역사정 (지리, 제도 등)
- 사회문화 (인물, 문화유산, 예술·체육·학술 등)

이에 따른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12 독 I-05-01] 독일어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과 관련된 언어 및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 [12 독 I-05-02] 독일어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12 독 I-05-03] 독일어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 [12 독 I-05-04] 독일어권 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한다.

문화와 관련된 학습목표가 교육의 현장에서 명확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이와 같이 문화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체계적인 구성은 문화의 특정 목표 실현을 위해 어떤 내용을 수업할 것인지 교수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2015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함에 있고, 그를 위해서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점을 총론에 제시하고 있다. 이 총론의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의사소통’에 있다. 의사소통형 외국어 교육 속에서 문화를 학습하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에 대한 나라사정 지식이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공된 외국어 수업의 문화교육은 언어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일종의 기능으로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 2 외국어 수업의 문화 수업도 언어 수업의 한 부류가 아닌, 핵심역량을 길러 내기 위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Pesola(1991)는 문화 간 관점에서 교실 수업에서 화제가 될 목록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 연구에서 Dunnett 외(1981)의 연구와 van Ek(1975) 등의 문화 목록 등을 기초로 교사는 먼저 대화의 화제 목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Murdock(1945), Rudolph/Tschohl(1977), Neuner(1993) 등은 인간의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보편요소들을 찾고 이에 대해 기술하고 범주화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독일에서 제시한 보편 생활 경험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참조. Neuner 1993, 113):

- 출생, 죽음 등 기본적인 존재경험
- 자아 중심 경험 및 개인 성격 등 개인적인 정체성
- 가족 및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회 정체성
- 이웃, 사회 등 상대(Sie)를 경험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 정체성
- 우정, 사랑 등 친구(du)를 경험하는 파트너 관계
- 집이나 고향과 같은 거주 - 환경, 자연, 문명 등 사적인 공간 외의 주변
- 부양책임, 실업과 취업 및 사회 문제 등의 노동문제
- 가치지향적인 교육문제/규범
- 음식, 쇼핑 등 생계와 관련된 소비문제
- 공간에 따른 경험 및 교통 등의 가동성
- 휴가/예술활동
-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역사적 경험
- 환상, 회상 및 감정을 표현하는 정신적·영혼적 차원의 활동 등

독일 문화의 보편요소들은 미국의 Dunnett 연구나 Van Ek 의 교실 수업에서의 화제 목록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 미국의 화제 목록에서는 ‘인종문제’와 ‘선입견’, ‘미국식’,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몸짓’, ‘늑어간다는 것’ 등 현실 속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다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요소들이 주로 화제 목록에 올라있다. 그러나 위 독일의 목록 마지막에 제공된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역사적 경험’과 ‘환상, 회상 및 감정을 표현하는 정신적·영혼적 차원의 활동’은 미국의 문화 목록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기에 제시된 미국 문화목록이 특히 교사와 학습자 간의 화제 목록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보편 문화요소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대개는 평균 15 개 내외로 분류하였다. 이 요소들을 모아서 Pesola(1991)는 크게 3 가지 영역으로 재분류하였는데, 김진석(2005)은 이 분류를 우리 교육 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문화적 상징으로서 문화 요소 (Cultural symbols)
 - 국기, 휘장, 배지
 - 국가 기념물, 지리적 기념물
 - 공휴일/국경일 관련 상징물

- 행운 혹은 불운을 가져오는 상징물
- 동물 상징
- 역사나 신화 속 영웅들 과 같은 상징적 요소로서의 문화

- 문화적 산물로서 문화 요소 (Cultural products)
 - 대표적인 시각 예술 작품
 - 대표적인 음악 예술 작품
 - 민속 문학의 중요 인물, 사건, 주제 등
 - 전통적인 동요, 노래, 게임
 - 전래 이야기나 전설, 동화
 - 대표적인 예술 작품
 - 화폐, 동전, 우표 등의 실물 자료
 - 전통 음식이나 명절 음식 등과 같은 산물로서의 문화 요소

- 문화적 관습으로서 문화 요소 (Cultural practices)
 - 인사의 방식
 - 휴일이나 명절을 지내는 방법
 - 제스처
 - 전형적인 음식과 식사 습관 방식
 - 쇼핑하는 방법
 - 인기 있는 오락 활동과 여가활동
 - 전형적인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 공손함이나 예절의 표현 방식
 - 애완동물의 형태와 그에 대한 태도
 - 아동과 가족이 이동하는 수단 등 생활 양식 및 행동양식에 관한 문화 요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중학교 생활독일어(2013)와 고등학교 독일어 1(2012)/ (2014) 교과서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대략 정리할 수 있다(참조. 박현선 2014, 96-97):

- 인사법
- 사적인 영역에서의 사회 정체성 (가족소개)
- 공적인 영역 사회 정체성(직업)
- 우정, 사랑 등 친구(du)를 경험하는 파트너 관계
- 음식 / 생계 / 쇼핑
- 교육 / 수업 / 학교생활
- 개인적인 정체성(자기소개)
- 거주
- 휴가 / 여가 / 자유시간

- 교통 및 가동성
- 의사소통
- 예술 / 문화
-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역사적 경험
- 환상, 회상 및 감정을 표현하는 정신적·영혼적 차원의 활동

이 요소들은, 2015 교육과정에 언급된 ‘언어문화’, ‘생활문화’, ‘지역사정’, ‘사회문화’의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다소 애매한 문화내용들이 있다. 이 내용들을 Pesola 의 3 가지 문화 범주로 다시 재분류 해보면 i) ‘문화적 산물’의 범주로 예술 문화 / 음식 / 주거 양식 / 과거, 현재, 미래 등 시간·역사적 경험 / 환상, 회상 및 감정을 표현하는 정신적·영혼적 차원의 활동 등을 구분할 수 있고, ii) ‘문화적 관습’의 범주로 인사법 / 가족형태와 가족소개 / 직업활동과 직업에 대한 사회 관념 / 공손함이나 예절의 표현방식 / 파트너 관계 / 전형적인 교육 및 생활방식 / 휴가 및 여가활동 / 교통 및 이동가능성 / 제스처 등과 같은 의사소통 방식 표현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구성에 따르면 ‘문화적 상징’ 범주의 내용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마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업이기 때문인지, 문화적 상징 범주의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문화적 관습과 같은 생활 양식과 행동양식의 측면에 문화 내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학습자의 상황과 학습 동기 등을 고려하여 문화 수업 내용 요소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문화 요소의 편중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문화 내용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낯선 외국의 세계를 두려움 없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며, 낯선 세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 요소는 기존 자국 문화의 지식과 연결되고 동화될 수 있을 때에만 그 수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화 요소를 적절히 배분하여 수업을 편성하고 사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수업 교수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V. 다문화 핵심 역량 기반 독일어 문화 수업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일문화 내용 요소는 문화의 산물과 관습에 치중되어 있고, 문화의 상징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문화수업에서는 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속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사가 하나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를 각 요소별로 상징, 산물 및 관습의 영역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화내용이 그 나름대로의 상징, 산물 및 관습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요소를 다양한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다각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학습자의 사고를 넓힐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교사의 질문 체크리스트 활용한 문화 수업 교수법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사고 확장 기회를 제공하는 질문 교수법은 III 장에서 언급한 다문화 3E 교육 원리에 따른 수업을 운영하는데도 매우 적합하다.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각적 층위의 ‘심층 질문법 수업’은 교사 중심의 설명형 수업이나 지식 전달형 수업 유형에서는 이를 수 없는 정서적인 요소들을 전제하고 있다. 문화수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서지능(EQ)의 역할이 필요하다.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학습 과정이나 작용을 학습이라고 규정한다면, 이 영속성을 지닌 진보적인 인간의 행동, 태도, 흥미, 습관 및 여러가지 능력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참조. Connell 2005). 인본주의적 정서지능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자’ 그 자체가 학습의 중요 요인이며, 학습자와 관련한 ‘내적 동기화’, ‘학습자의 내적 정서 상황 수용’, ‘학습자 개인의 지각에 따른 사태 인식의 다양성’이 핵심 키워드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사고해 볼 수 있는 문화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사려깊은 질문으로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시켜 내적인 움직임을 유발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부터, 다문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다문화 수업을 전개한다면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예와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 이를 위해 학습 분위기와 정서 기반 형성에는 ‘상호존중’과 ‘공감계발’이라는 다문화 교육원리를 적용시키고, 핵심역량으로는 ‘국제사회 문화의 이해’와 ‘타인의 배려’ 역량을, 다문화수업의 운영 방식으로는 심층 질문 교수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 질문법을 통해 ‘문화 상징’, ‘문화 산물’ 및 ‘문화 관념’이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문화 요소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원리 ‘존중’과 ‘국제사회 문화이해’ 역량기반 다문화수업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문화 교육의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 수업이 교실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수업 양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간단한 대화나 글에서 독일어권 언어 및 일상생활 문화의 특성을 찾게 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일어권 언어 및 일상생활 문화의 특성을 조사하게 한다.

- 독일어권 언어 및 일상생활 문화를 우리의 언어 및 일상생활 문화와 비교하여 발표하게 한다.
- 간단한 대화나 글에서 독일어권 지역사정을 찾게 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일어권 지역사정을 조사하게 한다.
- 독일어권 지역 사정을 우리의 지역사정과 비교하여 발표하게 한다.
- 간단한 대화나 글에서 독일어권 사회문화를 찾게 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일어권 사회문화를 조사하게 한다.
- 독일어권 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독일어권 사회문화를 우리의 상황과 비교·토론하고 발표하게 한다.

이 학습 방법에서는 주로 ‘발표’, ‘조사’, ‘비교’, ‘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 학습법이 주로 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서,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알고, 이해하고, 비교분석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 모형 ‘존중’ 요소를 다문화 수업을 통해 길러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 문화 이해’ 핵심 역량이라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습방식이 필요하다. 학습자 중심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정서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독일어 수업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문화내용 중 ‘부활절’ 문화를 수업한다고 가정해 보자.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부활절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 부활절날 독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 봅시다.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문화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 토론 및 발표해 봅시다.

예컨대, 부활절을 소재로 다룬다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위의 과제들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 모델 중 ‘존중’이라는 정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 이해의 핵심역량을 추구하는 수업을 구성한다면, 이러한 조사와 발표, 비교·토론뿐만 아니라, 실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문화권 사람들이 부활절에 행하는 행동양식까지를 체험하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이 수업구상을 위해서, Pesola 가 제안한 문화분류개념을 차용하여, 문화 소재에 다양한 층위의 문화 속성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문화학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즉, 문화 상징 의미, 문화 산물 의미, 문화 관습 의미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요소를 짚어보면서 학습자 자기 성찰과 대인 관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는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를 구상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문화 상징 의미로서 부활절
 - 부활절에는 어떤 상징물이 있나요?
 - 그 상징물의 의미는 어떻게 유래되었나요?
- 문화 산물적 의미로서 부활절
 - 부활절과 관련된 신화는 무엇인가요?
 - 봄의 여신과 부활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부활절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받나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달걀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표현해 봅시다.
 - 부활절에는 무엇을 먹나요? 숨겨진 초코렛을 찾아 봅시다.
- 문화 관습적 의미로서 부활절
 - 부활절의 휴일 기간은 언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은 공휴일인가요?
 - 매해 부활절날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부활절에 나타난 게르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부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부활절에는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인사를 주고 받나요? 이에 적절한 인사말을 건네 봅시다. 등

존중의 기본은 내 것과 낯선 것 그 자체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위의 학습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 문화에 담긴 민족 정서까지를 이해하거나, 실제 해당 문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달걀에 그림을 그려보기, 숨겨진 초코렛을 찾아 친구들과 나눠 먹어 보기, 봄의 여신과 관련된 신화와 예수 부활 관련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비교해 보기, 부활절 책정 방식에 따라, 다음 해의 부활절 날짜는 언제인지, 그 날짜를 찾아 맞춰 보기,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인사말 주고 받기 등 상징, 산물 그리고 관습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모의게임 등의 참여형 수업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참여형 수업은 자기 인식과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자기 성찰과 대인 관계에 대한 개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역할극은 선정된 역할을 자신이 어떻게 수행할지 역할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정서에 맞춰 캐릭터를 설정하는 ‘동일화’ 작업의 단계와 역할 수행을 통한 역할의 이해 및 해당 역할의 사회적 대인 관계와 사회적 기술을 이해하는 ‘사회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참고. 박현선 2015, 88). 이러한 동일화와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습자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존중은 나와

다른 낯선 문화에 대해 편견없이 인정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활절을 단순히 종교 행사로 간주할 수도 있고, 매우 이국적인 낯선 문화 등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는 요소이지만,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휴일이자 기념일이다.

이처럼 부활절 문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인정해 주는 존중감을 형성한다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부활절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국제감각을 갖출 수 있고, 역으로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도 그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독일 사회에 걸레되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교육원리 ‘공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 역량기반 다문화수업

공감한다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거나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타문화권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공감 능력을 계발해서 자신의 관점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수업이 학습자들에게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매우 세심하게 문화소재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수업 체크리스트를 구성해야만 한다.

학습자들은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화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유하여, 자기조절과 상호 공감대를 높이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예컨대 두 나라의 문화요소를 놓고 토론을 해야하는 찬반 논리 문화 수업은 자신의 감정만 주장하게 하는데 수업 목표가 있지 않다. 토론 수업의 목표는 각자 개별화된 자신의 생각에 입각하여 사태를 주장하되, 그 주장 과정을 통해 상호 감정을 공유하여 공동화하고, 최종적으로 개인 맞춤형 내면의 성찰까지 꾀하는 것이 목표이다. 토론 수업이 결국 자기조절, 감정이입, 공감대 형성까지의 감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형 수업 유형을 위한 공유형 수업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상대방의 금기문화를 다룰 때는 특히 공감능력 원리를 기반으로 한 타인에 대한 배려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마를 입는 남자’에 텍스트를 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문화수업을 진행해 보자. 이 주제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정형화된 시각이 형성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공감능력과 타인배려 능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수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기본으로 타 문화에 대해 공감하면서 타인의 것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문화학습 체크리스트를 세밀하게 작성해야만 한다. 텍스트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Lesen

Jungs, tragt endlich Röcke!



Warum müssen eigentlich immer nur Mädchen Röcke tragen? Und Jungen Hosen? Jungen haben doch auch schöne Beine! Röcke für Jungen – ist das nicht eine tolle Idee?
Sophie

Schon seit Jahrtausenden tragen Mädchen Röcke. Aber wenn du das ändern willst, fang doch mal bei deinem Vater oder Bruder an! Das wird sicher nicht leicht! Übrigens, in Indonesien tragen bei den Buddhisten auch die Männer lange Röcke.
Inga

Das finde ich gut. Man muss sich natürlich erst daran gewöhnen! Die Röcke für Jungen dürfen aber nicht gemustert sein.
Annette

Ich bin nicht deiner Meinung. Jungen spielen Fußball, fahren Skateboard und machen Inline-Skating. Mit einem Rock geht das nicht. Röcke sind doch gar nicht praktisch.
Jakob

Ich finde deine Idee prima. Jungen sollen wirklich Röcke anziehen, weil sie schöne Beine haben. In Schottland tragen die Männer ja auch Röcke. Ich freue mich schon darauf, bald viele Jungen in Röcken zu sehen.
Eva

Ich bin nicht deiner Meinung! Ich bin ein Mädchen und trage sehr oft Hosen. Niemand sagt mir, ob ich einen Rock oder eine Hose anziehen soll. Und wenn Jungen kurze Hosen tragen, ist das genauso schick.
Steffi

Danke für das Kompliment mit den Beinen! Du bist ein Mädchen. Aber versetz dich doch einmal in die Situation eines Jungen. Sicher möchtest du dann auch keinen Rock tragen.
Martin

Tipp
Lies den Titel, und überlege dir, wovon der Text handeln könnte. Das hilft dir, den Text zu verstehen.

- 문화 상징 의미로서 치마
 - 치마는 어떤 상징성을 갖나요?
 - 치마하면 떠오르는 성은 무엇인가요?
- 문화 산물적 의미로서 치마
 - 의복의 역사를 조사해 볼까요?
 - 의복이 성에 따라 구분된 것은 언제 부터인가요?
 - 각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 영국, 스코트랜드, 독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다양한 대륙의 전통 의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봅시다. 어떤 특징이 인상적인가요?
- 문화 관습적 의미로서 치마
 - 한국과 동일한 전통의상을 가진 나라가 있나요?
 - 의상은 문화 요소 중 상대적인가요? 절대적인가요?
 - 각국 의상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 치마가 여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치마를 입은 남성을 만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 치마를 입은 남성과 바지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나요?
- 패션과 유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패션과 개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등

토론 및 생각나누기 수업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공유형 수업을 구상한다면 우선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의 첫 번째 조건은 타인 및 낮은 것에 대한 존중이다. 이 존중은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및 격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 원리의 3E는 서로 연계적이며 순환적이다. 존중을 바탕으로 공유형 수업이 가능하고, 공유형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공감능력을 계발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주장의 개별화에서 수업 중 차츰 공감의 공동 요소를 알게 되고, 그 공동화 속에서 다시 자신의 또 다른 개별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수업의 결과로 얻어진 개별화는 토론 이전의 개별화 내용과는 다른 명제의 자기 개별화 내용이 형성되며, 학습자는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참조. 박현선 2015, 86-88). 그를 위해 수업 중에 지각된 내면 상태를 발표해 보면서 자기관리 및 성찰의 기회를 갖고, 공유된 생각을 다시 개인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발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 확정형 질문 교수법을 통해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 중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 상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이 공감의 과정 중 긍정적 생각 및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다문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외국어 문화수업의 원리와 효율적인 교수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타문화란 무엇인지 그 문화의 내용적인 것만을 조사하고 파악하기 보다는, 문화 교육을 통해 어떤 핵심역량을 기를 것인지,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당 문화요소를 다룰 것인지와 더불어 학습자를 이해하는 수업환경과 수업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Tiedt(2010)의 3 요소(esteem, empathy, equity)를 활용한 문화 수업을 제안했고, 이 중 ‘존중 esteem’ 요소를 키우기 위한 체험형 문화수업의 운영 방안과 ‘공감 empathy’ 요소를 계발하기 위한 토론형 문화수업의 운영 방안을 예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이 열린 관점으로 문화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면을 탐구할 수 있는 세밀한 질문리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었다.

특히 3E 원리를 바탕으로 단순히 지식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들의 정서이해를 토대로 타문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제안한 심층 질문리스트 유형과 체험형 및 토론형 수업방식 등은 의사소통 어학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 핵심역량 즉, 국제사회문화 이해, 대인관계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문제해결 능력과 정보처리 및 활용 능력 등과 같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 적합한 교수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논문의 말미에서 제안한 독일어 문화 수업의 경우, 여기서는 질문의 예시 유형만 제시하고 실제 이를 반영한 학습 소재 목록과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동양과 서양의 관점 차이를 극복하는 다문화 독일어 수업 모형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Connell, D. (2005). *Brain-based strategies to reach every learner*, Scholastic
- Fantini, A. E. (1997). *New ways in teaching Culture*, Virginia
- Kopp, G. (2009). Ping Pong Neu 2, Hueber
- Neuner, G. / Krüger, M. / Grewer, U.(1981). *Übungstypologie zum kommunikativen Deutschunterricht*, Langenscheidt
- Pesola, C. (1991). *Culture in the elementary foreign language classroom*. *Foreign Language*, 331-346, *Anmals*
- Stewart, E & Bennett, M.J. (1993). *American cultural patterns*, New York
- Tiedt, P. L and Tiedt, I. M. (2010). *Multicultural teaching: A handbook of activites, information and resources*, Boston. Allyn & Bacon
- 김진석 (2015).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다문화 교육*, 한국문화사
- 박현선 (2014). *학습자 중심 독일어 소통 수업 설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 S. 87-111
- 박현선 (2015). *학습자 주도 독일어 문화수업에 대한 고찰 - 정서 학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 S. 75-95
- 윤운성 (1995). *학습과 동기전략*, 문음사
- 이근호 외 (2013a).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외 (2013b).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완기, 김진석, 장은숙 (2012). *문화 속의 영어, 영어 속의 문화*, 제이와이북스
- 정종진 외 (2008). *뇌기반 교수-학습 전략*, 학지사
- 제 2 외국어과 교육과정 (2015). 교육부고시 2015-74 호 별책 16 호
- 최승현 외 (2011). *학습자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 방안 연구*, 교과별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현선

한국교원대학교 제 2 대학 독어교육과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 탑연리 250
Tel: (043) 230-3555
H.P.: 010-6607-8400
Email: sunpark@knue.ac.kr

Received on 31 October 2016

Reviewed on 15 November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30 November 2016

Accepted on 24 December 2016